

1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주제 : 코로나>

북클럽 팀명	독(讀)한 사람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한**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2020	이름	이**	학번	2020	이름	주**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1주차 현대 사회의 큰 이슈 알아보기 - 코로나와 혐오</p>							
	<p>선정 도서 : 포스트 코로나 (임승규 외 4인)</p> <p>1. 감상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 '포스트 코로나' 책은 제목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와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양한 측면을 담았다. 하지만 책의 출판 연도인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코로나를 바라봤기에 책을 읽는 2022년 4월의 우리에게 이 책이 거리감 있게 느껴졌다. 또한 책에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가 있어 방역수칙을 잘 지켜져 코로나를 예방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국민 입장에서 신뢰보단 안 지켰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고려한 것에 가까웠다고 느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사회가 삭막해지며 사람들과 멀어지는 시기에 코로나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각박한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이니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은 줄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 볼 수 있는 매체가 있다 보니 다른 집단과의 소통보다는 서로 미워하는 혐오 사회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 이** : '포스트 코로나'의 <정치·사회> 챕터를 읽으면서 저자가 이 글을 썼던 시점과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시점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달라서 공감이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저자는 국민들이 방역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코로나 19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확진자의 동선을 개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으로 정보를 개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이 방역시스템에 동참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그리고 법을 따랐을 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저자는 계속해서 '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에 동의하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연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클럽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등 많은 갈등을 낳았다. 이는 점점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소통의 창이 감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 : 2020년 초반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개인과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책은 초기 대응으로 가장 혼란스러울 시기인 2020년에 발행되었고, 현재의 코로나 양상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 간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새로웠고 현재와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국제 및 한국 사회에도 각종 혐오와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제 사회에서는 아시안,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발생하며 유럽 등에서 인종 차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중일 관계는 어떨까?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이 사전협의 없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한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반대로 중국과는 방역 물자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살펴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연대보다는 '중국인 혐오'의 목소리가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또 국내에서도 초기 코로나를 전파한 신천지 신도로 인한 종교 혐오, 대구에서 집단 전파되면서 발생한 지역 혐오, 20대의 전파율이 높다는 이유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전처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연대가 부족해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남을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혐오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 주** : '포스트 코로나'는 2020년도 저술되었던 책이었어서 지금의 상황과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색다르게 다가왔다. 지금은 백신 2차,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이 때는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라 백신에 매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증명이 된 지금 매우 안타깝다. 또 책을 쓴 저자와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존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대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다른 몇몇 국가들은 이동 제한, 공장 가동 중지 등의 엄격한 규칙을 세워 코로나를 방지하자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은 이동제한도 풀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별적인 방역에 힘썼지 정부에서 억지로 제한한 적은 별로 없었다. 나도 이런 점

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2년이 넘어버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줌으로 대화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끔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집단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사는 아직 힘들다. 그 과정에서 소통과 이해의 부족, 사람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혐오, 갈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조금씩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혐오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와 갈등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2. 활동 사진

2022년 4월 28일

참가자대표 : 이**

2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주제 : 인종 차별>

북클럽 팀명	독(讀)한 사람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0일(화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2237	이름	한**	학번	20195220	이름	이**
	학번	20202232	이름	이**	학번	20202751	이름	주**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2주차 인종 차별 선정 도서 :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p> <p>1. 감상평</p> <p>- 한** : 책을 읽으며 부 래들리 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았다. 부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리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대의를 신경 쓰는 부가 멋있다고도 느꼈다. 책을 읽고 나서 왜 작가가 1930년대로 설정했는지 궁금해 당시 미국의 상황을 살펴봤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겪는 상황이었다. 곳간이 차야 인심이 후하다는 말처럼 백인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흑인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작품에서도 그런 사상이 담겨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갈등과 혐오 증가도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시 흑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안 좋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흑인 차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에 비해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진행된다고 느낀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당시 서양에서는 코로나의 발병지인 중국, 나아가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아직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이어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인종 차별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 편견은 나도 조금은 불현듯 나타난다. 나부터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p> <p>- 이** :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에티</p>							

커스의 "박해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란다."라는 구절이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박해하고 혐오하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과의 차이점을 단지 '다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차이점을 두고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이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그건 단지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다. 이런 당연한 사고방식조차도 뿌리 깊은 편견에 잡아먹히기 십상이다. 메이콤이라는 마을 속 사람들도 어쩌면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헤어 나올 노력조차 해보지 못한 채 편견 속에 갇힌 것 같다. 나도 누군가를 편견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마음 한편에 있지만 없애려고 하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이 책이 혹평을 받는 이유 중에는 이 책의 독자 타겟층이 차별을 가하는 백인이자 흑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의견에 반대한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행하는 주체자들을 저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 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생각한다.

- 이** : 왜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인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앵무새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죄의 상징, 즉 부 래들리(이웃과 어울리지 못함)와 톰(흑인)과 같은 약자를 뜻한다. 즉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사건들은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소외시키고, 심지어 살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부 래들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날려 스카웃의 오빠 잼을 구하는 장면이었다. 처음에 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궁금했는데, 스카웃이 웃으며 그를 부라고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감동을 느꼈다. 팀원들과 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로 배경을 설정했는지 유추해보았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도덕심이 흔들리고 혐오나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배경은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각박해지면서 차별과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스카웃의 아버지처럼 인간성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팀원 중 한 분이 메이콤이 약간 춘천과도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춘천에 사는 지인도 춘천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자주 한 기억이 있어 공감이 되었다. 작은 마을일수록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 같다. 또 이 책을 통해 어른들이 편견을 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편견이 더욱 깨지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부 래들리를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하지만, 어른들은 괴상하고 음침한 사람으로 그를 낙인찍어 오랜 기간을 소외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말이다. 책을 읽으며 밥 이웰 또한 어찌 보면 소수자이자 약자 아닐까, 교훈을 위해 특정 사람에게만 약자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아쉽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아직 인종 차별이 남아있는 당시에 인종 차별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상을 받으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이 매우 의의가 있었다.

- 주** : 제목부터 강렬한 느낌이어서 과연 어떤 책일까 궁금했다. 책에서 나온 주인공 부 래들리와 톰은 다른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따돌리고 피한다. 즉 제목에서 말하는 앵무새는 부 래들리와 톰이고 이들은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온 문장 중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던 내용인데, 요즘은 혐오나 차별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다. 차별받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그들을 지지해주기 위해선 더욱 그들의 삶에 빠져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활동 사진

2022년 5월 10일

참가자대표 : 이**

3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주제 : 장애인, 동성애 혐오>

북클럽 팀명	독(讀)한 사람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9일(목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2237	이름	한**	학번	20195220	이름	이**
	학번	20202232	이름	이**	학번	20202751	이름	주**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3주차 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p> <p>선정 도서 :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박민영) <제2장 - 2. 장애인 혐오, 3. 동성애 혐오></p> <p>1. 감상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 우리 팀은 이번 시간 장애인, 동성애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책을 읽으며 장애인과 동성애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회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아직 인식 개선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책을 읽으며 조금 충격적인 것은 나도 무의식적으로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가장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부터 조금씩 이런 표현을 줄여야겠다. 장애인은 사실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 만큼 나조차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처음 안 사실인데 정신병원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인원수에 맞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 시설에 돈을 지원한다고 하여 어이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의 목적은 숨겨두고 앞에서는 착한 일 한다며 지원을 받는 게 참 처음 안 사실이라 사회의 아직 드러나야 할 사실들이 많다고도 느꼈다. 나부터가 이런 것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야겠다. - 동성애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이성애가 자연스럽듯 그저 사람의 취향인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도 기독교이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반대는 천동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잘못된 신념이라고 느낀다. 최근 범죄자나 악당에 대해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었고 나 							

는 그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을 통해 범죄나 악당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며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흔히 소수자, 약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며 즐기는 것 같다.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았다는 생각도 든다.

- 이** : 옛 속담에서 장애인을 폄하하는 뜻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혐오가 공연히 깔려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혐오적 표현들과 사상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얼마 전, 교양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교수님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볼 때 비장애인의 수가 장애인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두고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칭하지만. 그 반대로 봤을 땐 어떨까? 장애인의 수가 비장애인의 수보다 훨씬 많을 때는 장애인이 보았을 때 그들이 비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인 것 아닌가?"라고 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보다 특정한 부분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장애'하면 생물학적 손상을 떠올리지만 장애는 거기에 '사회적 억압'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그저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옳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정말 장애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이익에 좀 더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제 입원의 수가 많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2022년 지하철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해서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이 당했던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에 대해 존중하지만 다수의 편리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것은 아쉬웠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던 사람은 이 장애인 시위로 인해서 혐오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동성애에 대해 의견도 나누었다. "동성애는 그들의 정체성과 취향이므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전까지는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동성애 찬성 또는 반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다. 내가 감히 그들의 취향과 정체성을 판단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 이** : 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최근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떠올랐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항의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시위가 얼마나 자주,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현재의 격한 시위로 번지기 전까지 이들의 의견은 기한 없이 늦춰지기만 했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현재 시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시당한 것이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들의 고통을 무시한 것이므로 따지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반성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해당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아주 불편할 것이다.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작 타격이 닿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탓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 이전에 그들을 목살하는 국가에게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었다. 내 주변에는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실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기독교인 부모님께서 평소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다소 극단적인 논리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는지 알 수 있었다.
- 주** : 이 챕터에선 장애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최근에 있던 장애인 시위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생각하면 항상 관심은 많이 받지만 이에 대한 찬반으로 애먼 사람들이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혐오와 차별 문제는 잊혀진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마치 '앵무새'처럼 죽임을 당한다. 물론 장애인과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순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2. 찬/반 토론

【 논제 : 드라마, 영화 속 악역에게 서사를 부여해야 하는가? 】

(아니면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 사이코패스, 조현병으로 묘사하는 게 나은가?) **】**

찬성 : 한, 이****

- 서사를 부여하는 것도 드라마, 영화의 재미와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로 최근의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등장하는 완다가 악역이 된 서사를 담은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완다라는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감정 이입을 하며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범죄 행위에 대한 동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는 차원의 서사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었다는 단순한 설정이야말로 정신병, 장애인에 대한 갈등과 공포를 조장한다.

반대 : 이, 주****

- 악역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드라마, 영화는 각본과 대본이 있고, 엄연한 허구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 장애 설정이 나와도 혐오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살인,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동정의 여지를 부여하고, 일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옹호하려는 것과 같다.
- 공통 결론 : 최근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인 '꼬꼬무' 등 범죄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의 일생, 동기를 각색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면 '오은영의 상담소'와 같이 실제 사람들(피해자, 가해자 상관없이)의 이야기에서 성찰, 경각심, 이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즉, 서사를 부여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때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활동 사진

2022년 5월 19일

참가자대표 : 이**

4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주제 : 청소년, 어린이 혐오>

북클럽 팀명	독(讀)한 사람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26일(목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2237	이름	한**	학번	20195220	이름	이**
	학번	20202232	이름	이**	학번	20202751	이름	주**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4주차 청소년 혐오, 어린이 혐오</p> <p>선정 도서 :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박민영)</p> <p><제1장 - 1. 청소년 혐오></p> <p>1. 감상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열화이다. 경쟁으로 높은 학구열과 성적 향상을 이루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은 공부 이외의 것(외모, 물건 등)으로 서열화된다. 해서 성인이 청소년들을 혐오하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들부터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열화시키는 등 청소년 문화부터가 조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청소년들부터 차별하는 문화가 줄어야 그들이 자랐을 때 차별하는 문화 또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성인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과거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해보인다. 그리고 아동 혐오와 관련해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이 생긴 원인 중 2008년 아이가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다가 화상을 입었던 사고가 안타까웠다. 그 당시에 누구의 잘못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식당 측에게만 너무 강한 책임을 물었다. 만약 이 일이 서로에게 조금 더 잘 해결되었다면 이 정도로 노키즈존이 확산될까 싶은데 그만큼 이 사건이 아쉬웠다. 나아가 노키즈존을 비롯해 '노시니어존', '노유스존' 등도 생겨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20대~40대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를 배척하는 게 정도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사회가 세대와 불편이 있을 때 이를 이야기로 해결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벽을 만들어 더욱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가 된다고 느껴 안타까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람은 결국 유아,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을 모두 거치기에 다른 세대도 나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세대를 이해하면 좋겠다.

- 이** : 하루가 다르게 청소년을 혐오하는 말과 유행어가 생겨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만 유독 각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무시당하고 혐오적인 시선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자세로 후세대들을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존중받고 배려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존중을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청년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그저 입시제도에 그칠 뿐 복지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구나 청소년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이 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청소년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이유 없는 혐오의 시선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팀원분들과 노키즈존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토론 전까지는 노키즈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노키즈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단 '노키즈존'이란 이름부터가 거부감이 들었다. 노키즈존의 타겟이 산만하고 시끄럽고 부주의한 아이들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보호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키즈존'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만들면서 어린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킨다고 생각한다.

- 이** : 나는 오히려 청소년 혐오가 알게 모르게 엄청 퍼져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미디어에서도 자극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른들이 먼저 청소년들이 쓸 법한 부정적인 유행어를 탄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팀원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 단순하게 '어른들이 청소년 혐오를 멈춰야 해!'로 귀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언론과 사회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방관하고 부추겼고, 결국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제하지 못하고 남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멈춘다고 영향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추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을 어리고 철없는 아이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재재의 문명특급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인 '모버실'이라는 놀이를 직접 해보는 영상이 있었는데, 청소년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 하는 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교육', '사춘기'라는 단어로 묶는 게 아닌 미래 세대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 주** : 이 부분에서 읽은 내용들은 평소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던 혐오와는 다른 내용이었다. 특히 청소년 혐오에 대한 내용은 내가 공감하기 힘들었다. 청소년들이 욕을 먹고 우리가 그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면 그들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서로도 서스럼 없이 내뱉는다. 그리고는 타인에게 급식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선 혐오당했다고 외친다. 또한 청소년을 일반화해서는 안되지만 청소년들끼리의 학교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를 보면 어른들보다도 더 흉악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수사망을 빠져 나가며 유유히 웃고 있다.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혐오를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금은 다른 주제인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등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혐오에 대해서는 난 공감할 수 없었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혐오하고 있다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 신문 스크랩

'노키즈'하니 '힙'하고 편한가, 2022.05.13., 임지영, 시사 IN, 764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4>)

① 노키즈존을 명시하는 것은 자유이다?

- 명시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의 알 권리이기 때문이다.

② 노키즈존 지도에 업로드하는 것은 영업방해이다?

- 차별은 하지만 영업적인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인드는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노키즈존이 생기면 노교수존, 노시니어존도 가능할까?

- 아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자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엄연한 차별이며, 노 시니어존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차별임을 인지해야 한다. 인권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④ 노키즈존에 대한 입장 총정리

-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노키즈존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아이와 방문한 엄마 입장일 때에는 그러한 배제가 분명히 상처가 될 것. 사회적 약자를 단절,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또 사실상 노키즈존 문제는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의 보호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가게에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분리해 설치하는 등 조금이나마 차별이 적은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활동 사진

2022년 5월 26일

참가자대표 : 이**

5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주제 : 차별에 대응하는 자세>

북클럽 팀명	독(讀)한 사람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장 소 : Zoom (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182237	이름	한**	학번	20195220	이름	이**
	학번	20202232	이름	이**	학번	20202751	이름	주**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5주차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선정 도서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제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 8, 9, 10장></p> <p>1. 감상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 살아가면서 나는 차별을 느낀다고는 생각을 했어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책을 보니 생각보다는 이익을 많이 얻었고 남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무심했다. 심지어 그런 차별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책을 읽으며 새로 알게 된 것들도 많았다. 사실 나조차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성 소수자 같이 나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도 상당히 많았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 성소수자 화장실 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바로 모든 건물의 성 소수자까지를 고려한 화장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북클럽을 통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 모두가 갖는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학기 북클럽을 통해 혐오라는 주제에 다뤘다. 20살에도 혐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언급될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 혐오에 대해 다시 살펴보니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느낀다.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바쁘고 정보가 넘치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남에 대한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입장이 아닌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겠다고 느낀다. 그래도 북클럽을 통해 내가 몰랐던 사회현상을 알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 이** : 이 책을 보면서 2018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서 장애인 단체가 요구했던 것이 고스란히 현재 2022년의 시위에서도 고스 							

란히 요구하는 것을 보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스스로도 그 시위 당시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지속적인 관심은 갖지 않았구나 하며 반성하게 되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동성동본혼에 대해 현재의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예전의 동성동본혼에 대한 인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따라서, 지금은 인식이 안 좋아도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내고 사회도 그것을 조금씩 인정해 주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사회가 인정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제3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과연 제3자 그들의 존재의 유무를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토크니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다. 토크니즘은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일부만을 대표로 뽑아 구색을 갖추는 정책적 조치 또는 관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된다. 여기서 느낄 수 있듯이 토크니즘은 단지 구색을 갖추는 보여주기식 관행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자를 위한 배려라고 포장하며 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그다지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토크니즘'을 역차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 이** : 개인적으로 나를 많이 설득시킨 책이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보다는 우위에 서서 차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깊게 와닿았다. 토크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평등을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되면 되지 이 제도로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역차별이라는 주장만 강화시켜 남녀 간 대립을 부추기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물론 아예 이 제도조차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이 합격할 확률이 더욱 낮았을 것이고, 그래서 할당제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허울 뿐인 낡은 정책 대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 책에서 다룬 것처럼 장애인, 성소수자, 일반인 모두가 존중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날이 올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백화점, 박물관, 음악 홀 등 세련되고 고급의 문화로 여겨지는 장소의 화장실부터 변경해 적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자 '성적지향'과 같이 논란이 많은

항목을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나는 매우 반대하는 의견인데, 결국 나중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더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통과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성적지향을 빼고 통과된 법이 효력이 있을까? 이처럼 차별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고 숨겨진 차별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는 동성동본혼도 이전에는 엄청나게 두렵고 혼란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늘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혐오 사회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 주**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다. 최근 나온 정책 중 토크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채용 과정에서 토크니즘을 이용해 남, 여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그 방법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성별과 학력 등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뽑는 방법이 모두에게 타당할 것 같다. 사회에서 차별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확실히 변화하고 있고 더 많은 차별에 대해 알아차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변화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2. 활동 사진

2022 년 6월 3일

참가자대표 : 이**